

지역민 보전·관리 노력 결실...

여자만, 국가 해양생태 거점으로

여자만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대한민국 생태의 심장 '여자만'이 해양생물 보전과 생태·관광 기능을 갖춘 국가 해양 생태 거점으로 거듭난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예타 통과 시 2031년까지 총 1천607억원을 투입, 국내 최초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세계적 생태 체험 공간이 조성된다. 사업 지구인 보성·순천 일대는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59.35km²의 갯벌과 함께 국내 최대 염습지를 품은 생태 보고다. 흑두루미, 붉은발말뚱개 등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처이자 지역 주민이 수백년간 공존한 삶의 터전이다.



'여자만'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생태·관광 기능을 갖춘 국가 해양 생태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진은 순천만에서 어민들이 빨배를 이용해 어업 중인 모습. <전남도 제공>

무엇보다 전남도는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4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업 계획을 보완하며 구체성·경제성을 갖춘 계획안을 마련, 정부 설득에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최초로 이름을 옮리며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준 규제 중심의 보호 구역을 넘어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다.

◇멸종위기종 등 2만마리 서식·생태계 보고'

여자만은 국내 최대의 내만 갯벌로 수많은 생명이 깃들고 자라는, 살아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특히 여자만 내측에 위치한 보성·순천 갯벌은 순천 동천과 보성 별교천에서 흘러든 육지 퇴적물로만 형성된 펠갯벌로 하구에 발달한 염습지가 특징이다. 염생식물과 갈대가 어우러진 염습지는 풍부한 유기물을 생산하며 갯벌 생물의 서식지와 음식처를 제공해 포식자와 강한 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준다.

보성·순천 갯벌은 저서규조류 약 188종, 해조류 약 23종, 대형저서동물 약 45종, 물새 약 120여 종등총27만여마리의 개체가터를 잡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 아생물인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와 꼬막, 짱뚱어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특별히 기여하고 있다.

꼬막·바지락·妣조개를 길러내며 지역 경제의 뿌리가 돼온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을 동시에 품고 있는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고, 흑두루미의 세계 최대 기착지로서 생태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4년 정부 설득 끝에 예타 대상 선정

해수부,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생물 서식지 보호·생태계 보전 기여

교육시설·전시관·생태 탐방 기반시설

예타 통과 시 2031년까지 조성 속도

위한 지역민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1996년 7월 순천 소재 한 기업이 골재 채취 겸 하도정비사업 허가 신청을 했고 이에 순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골재 채취 반대 운동이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지역민의 순천만 보전운동에 힘이 실리면서 1998년부터 민간 주도 조류 조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흑두루미·황새·검은머리갈매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1998년 결국 골재 채취 허가가 취소됐다. 이는 순천만 보전의 첫 성과이자, 시민 참여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다.

2003년 순천만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2008년 갯벌 최초 국가 명승 제41호 지정, 2009년 국내 연안습지 최초 람사르습지 등재 등 순천만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다. 2009년에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만 인근 773.8ha(순천시 전체 면적의 85%) 규모를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하며 보전 범위를 넓혀갔다.

최근까지도 순천시는 습지 주변 전기사업(태양광 25건, 1만7천250㎡, 2천340㎾) 신청을 경관과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불허했다. 치열하게 갯벌을 지키려 한 지자체와 지역민의 노력은 2021년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며 '세계 5대 갯벌'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여자만 노력...개발 압력 속 갯벌 지킨다

전남은 갯벌을 지켜내기 위해 개발 압력과 보전의 필요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더 많이 멈추고, 더 많이 포기하는 선택을 해왔다.

정부는 1992년 영산강 하구 일대의 대규모 간척을 통해 농경지 확보와 담수화 조성 등을 목표로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모두 1조9천600억원을 들여 목포, 무안, 함평, 영광, 신안 주변의 섬과 섬 사이를 18개 방조제(63.9km)로 막아 1억3천728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갯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 지역민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고시 이후 6년 만에 사업 계획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져 결국 정부는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백지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를 기념해 지역민들은 2010년 함평 둘더리 해수욕장에 '함평만생태보전기념비'를 세워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구시대의 개발계획 철회를 기념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다'고 낭겼다.

순천만 습지와 연계되는 내륙습지인 순천 동천하구를 둘러싼 개발 갈등도 갯벌을 지켜내기



순천만에서 자연을 탐험하는 아이들.

또한 전남도는 여자만이 지켜낸 '한국의 갯벌, 염습지, 멸종위기종, 섬과 바다, 보전의 역사'가 갖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교육·관광 콘텐츠를 개발, 미래 세대에게 자연과의 공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에서는 자연의 설계로 태어난 갯벌의 모습을 구현하고 120년 전통의 '빨배'를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갯벌을 관리하고 이용해 온 지역민의 문화를 직접 전달한다.

여자만을 국내 최대 서식지로 둔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1만2천km²에 달하는 세계일주 여성들을 가상현실(VR)로 구현해 생명의 경이로움을 전달하고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붉은발말뚱게의 인공증식·방류를 통해 개체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전남도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육·해상 탐방 코스 개발과 빨배 체험, 갯살이 문화, 섬살이 전통을 관광·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주민 소득과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에도 방침을 둘 방침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역 주민들은 갯벌을 지키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해 내는 의지와 저력을 보여줬고 여자만은 대한민국 생태 심장으로 또 한번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만들며 어려운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여자만을 멕시코 카보 팔모 국립 해양공원이나 유럽의 와덴해 갯벌공원처럼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국가 해양생태계의 새로운 모델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시원 기자



▲함평만생태보전기념비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종합구상도



희망 가득한 병오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희망 가득한 병오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지정기간 2026.01.01 - 2028.12.31

동아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

